

# 영암서 '월드 모터바이크 페스티벌' 열린다

국제자동차경주장서 7~10일...이탈리아·독일 등 7개국 280대 참여  
전문 라이딩 교육·경품 이벤트 등 다채...국내 모터스포츠 발전 기대

전남도가 후원하고 한국이륜차안전보급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23 월드 모터바이크 페스티벌이 7~10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된다.

'월드 모터바이크 페스티벌'은 모터사이클 국제 대회와 국내외 안전운전 교육이 함께하는 바이크 종합 스피드 축제, 국제자동차경주장 전 트랙(F1트랙·상설트랙·제2트랙·드라이빙 센터)을 활용한다.

7일부터 두카티 라이딩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된다. 두카티 라이딩 아카데미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전문 라이딩 교육이다. 입문자부터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과정까지 참가자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모터사이클(GP·Grand Prix motorcycle racing) 정상급 선수인 일본 히로키 오노를 초청한 전문레이싱 교육과 함께 현장 관람객이 참가하는 '바이크 집거나 안전운전 교육'도 진행된다.

9~10일엔 두카티(이탈리아), KTM(오스트리아), BMW(독일), CF MOTO(중국) 등 각 나라

를 대표하는 바이크로 구성된 '코리아 트로페오 2전'과 가와사키 원메이크(동일차종) 경주로 국내 드론 전문업체인 ㈜숨비가 후원하는 '숨비배 난자컵 4전'이 국제전으로 열린다. 대만, 일본, 이탈리아, 태국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 280대가 참가한다.

코리아 트로페오 2전은 유료 관람으로 진행되며 트랙데이즈 누리집(www.trackdayz.co.kr)을 통해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10일엔 관람객과 참가자를 위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경품 이벤트는 '슈퍼패스트 클래스'의 예상 우승자에게 응모한 후 한 명을 추첨해 1800만 원 상당의 '두카티 스크램블러 어반모터드'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이상용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모터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국내 모터스포츠 발전과 다변화에 큰 몫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7~10일 '월드 모터바이크 페스티벌'이 열린다. 코리아 트로페오 대회 장면.

<전남도 제공>

## 조대여고, 핸드볼코리아 전국중·고선수권 우승

여고부 리그전 4전 전승 1위  
골키퍼 박사람 '최우수선수상'  
조대부고는 남고부 공동 3위

조대여고가 2023 핸드볼코리아 전국중·고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조대여고 핸드볼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경북 김천실내체육관과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고부에서 4전 전승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3개 팀이 리그전으로 우승을 가린 이번 대회에서 조대여고는 지난달 31일 무안고와의 첫 경기에서 22-19로 이기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이어 지난 1일 정읍여고를 30-19로 대파하고, 3일 무안고를 다시 31-22로 물리쳤다. 조대여고는 4일 정읍여고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22-14로 승리하며 전승 우승을 일궜다.

이번 대회에서 골문을 든든히 지키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조대여고 골키퍼 박사람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조대부고 핸드볼팀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조대부고는 지난달 30일 남고부 예선리그 첫 경기서 낙동고에 26-28로 패한 뒤 1일 천안신당고(25-24)와 2일 경원고(25-16)를 내리 이겨 2승 1



조대여고 핸드볼 선수단이 지난 4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 핸드볼코리아 전국중·고선수권대회 여고부 전승 우승을 차지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패를 기록, 조 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조대부고는 준결승서 다시 만난 낙동고를 상대로

실용전을 펼쳤으나 20-21로 아쉽게 패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디자인비엔날레 전시 2관과 3관을 연결하는 3층 브릿지에 전시되는 광주FC 선수단 배너.

<광주FC 제공>

## 뜨거운 질주 이어가는 광주FC 디자인비엔날레에서 만나세요

친환경 소재로 만든 선수단 배너 전시관 3층 브릿지에 전시

프로축구 광주FC를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만날 수 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든 광주 선수단 배너가 제 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는 전시관 3층 브릿지에 전시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7일부터 11월 7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광주는 광주디자인진흥원의 협조 속에 선수단 배너를 제작해 이번 전시에 참가한다.

전시 장소는 디자인비엔날레 전시 2관과 3관을 연결하는 3층 브릿지로 관람객들에게 광

주 선수단을 소개하는 무대이자 포토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정호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1부 리그로 돌아온 올 시즌 '무조건 공격' 전략을 앞세워 과정은 물론 결과에서도 팬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3일 울산에서 진행된 29라운드 경기에서는 '1위' 울산현대를 2-0으로 제압하는 등 12승 9무 8패(승점 45)의 전적으로 3위에 자리하고 있다. A매치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광주는 17일 FC서울과의 원정경기를 통해 뜨거운 질주를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 여자배구 '끝없는 추락'

카자흐스탄에도 0-3 완패...아시아선수권 역대 최악 6위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카자흐스탄에도 완패하면서 아시아선수권 역대 최하위인 6위로 일정을 마쳤다.

세사르 에르난데스 곤살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세계랭킹 29위)은 6일 태국 나콘라차시마 MCC홀에서 열린 2023 아시아배구선수권 5위 결정전에서 카자흐스탄(39위)에 세트 스코어 0-3(24-26 23-25 23-25)으로 패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예선에서 베트남(40위)에 열미를 잡혀 C조 2위로 힘겹게 8강 라운드에 올랐고, 8강 라운드에서는 태국(14위)에 완패해 5-8위 전으로 떨어졌다.

인도를 잡고 5위 결정전으로 올라왔지만, 마지막 경기에서도 패하며 6위로 대회를 끝냈다.

한국은 1975년 아시아선수권에 처음 참가한 이래 20회 연속 4강 진출에 성공했다. 우승은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준우승 7회, 3위 10회, 4위 3회로 자존심을 지켰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6위에 머물렀고, 아시아 4강도 자신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만 확인했다.

한국 여자대표팀은 7일 귀국해 여독을 풀 뒤 폴란드로 건너가 2024 파리 올림픽 예선(16~24일)을 치른다.

파리 올림픽 예선 C조에서 한국은 미국(2위), 이탈리아(6위), 폴란드(7위), 독일(13위), 태국, 콜롬비아(20위), 슬로베니아(25위)와 맞붙는다. C조에서 2위 안에 들면 파리 올림픽 진출을 확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승도 자신할 수 없다. 여자 대표팀은 파리 올림픽 예선을 마치면 중국으로 이동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오픈하이머
- 2관 오픈하이머, 엘리멘탈, 밀수
- 3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4관 일주일간 친구
- 5관 타겟, 생츠퍼러: 마법의 소원나무
- 6관 잠
- 9관 달짝지근해: 7510
- 7관 씨네커플 잠
- 8관 씨네커플 잠, 밀수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 9. 15-16  
광주예술의전당 원형극장  
19시 30분

극단 코끼리들이 왔다가  
**물집**  
일시 : 2023-09-15(금)-16(토)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원형극장(야외)  
문의 : 062-613-8235

4  
**Deutsches Radio Philharmonie**  
독일 방송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with 손열음  
2023. 09. 16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